

공개된 정보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30분경, 유명 영화감독 최승배가 스튜디오 촬영장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시체는 천장 높이 설치된 조명 레일에 매달려 있었고, 목에는 두꺼운 전선이 감겨있었다. 주변에 사다리나 높이 올라갈 만한 물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살 같지는 않다. 이날은 심야까지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촬영 중인 영화는 '뒤틀린 정원'. 교외의 대저택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그린 내용이다. 최근 영화계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명배우 조영신이 주연으로 결정되며 촬영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최승배가 죽은 것은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 사이다. 촬영 중에는 스태프가 다 모여 있었고, 오후 10시부터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사체의 최초 발견자는 단역 배우 김주원, 발견 시각은 11시 30분이다. 스튜디오는 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고, 넓은 장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이 드나들었을 리는 없다. 현장의 인원 중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총 4명. 범인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10시	조민형, 최승배의 심부름으로 촬영장을 나감
	이수현, 컨테이너로 출발
	김주원, 주차장에서 대본 연습
오후 10시 10분	이수현, 컨테이너에서 쉬다가 잠들
오후 10시 30분	조영신, 숙소로 출발
오후 10시 40분	조민형, 철물점 도착
오후 10시 50분	조민형, 사다리 구입, 다시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조영신, 숙소 도착
오후 11시 10분	조영신, 촬영장으로 출발
오후 11시 30분	김주원, 촬영장에 미리 왔다가 최초로 시체 발견
	조민형, 촬영장 복귀
	이수현, 비명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뒤 촬영장 도착
오후 11시 40분	조영신, 촬영장 복귀



조영신(26)



조영신(26) 여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마약 중독 사실을 최승배 감독에게 들켜 협박당하고 있었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키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10년 전 '캔디걸'로 은막에 데뷔한 인기 절정의 배우다. 이번 최승배 감독의 영화에도 단독 주연으로 발탁되었고 '거장과 대배우의 재회'라는 이슈로 대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크랭크 인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위기가 닥쳤다. 최 감독이 당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알아챈 것. 최 감독은 당장 마약을 끊지 않으면 영화에서 하차시키고 마약 중독 사실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엄포에 놀란 당신은 한동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금단현상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감독은 당신에게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암시하려 했고, 웬지 스킨십도 찾아진 느낌이었다. 당신은 불안한 마음과 금단현상에 시달리다가 참지 못하고 마약 거래상에게 다시 연락했고, 12월 1일에 대금 결제를 하기로 약속했다.

사건 당일, 당신은 걸옷을 가지러 숙소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거래장소를 향했다. 거래장소가 숙소와 반대 방향이기도 했고, 혹시 모를 미행을 방지하기 위해 10시 30분쯤에야 출발했다. 거래장소를 향해 가던 중 당신은 숲길에 주차된 조민형의 트럭을 발견하고 잠시 놀랐지만, 다행히도 트럭 안에 조민형은 없었다. 거래장소에 도착한 당신은 현금을 약속한 사물함에 넣어두고, 약이 들어있는 사물함 열쇠만 챙겨서 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낮에 미리 촬영장 근처 숲길에 숨겨둔 캐리어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애써 안색을 밝게 하며 촬영장에 돌아온 당신은 촬영장에 벌어진 사건을 보고 기쁨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감각은 기시감이었다. 당신은 10년 전에 일어난 똑같은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캔디걸' 촬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조감독 조승원도 10년 전 이렇게 목을 매었다. 조승원은 아직 어려서 무시당하던 당신의 재능을 칭찬해주고 언젠가 대배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던 유일한 사람. 10년 전 승원이 장난삼아 만들어주었던 '대배우 증서'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다. 진짜 대배우가 되겠다는 약속을 10년 전의 마음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동안 숨겨온 비밀이 어이없게 들킬지도 모른다. 차 안에 넣어둔 전기충격기와 의료용 고무줄이 신경 쓰인다. 전기충격기는 최승배의 스토킹을 우려해서 사줬을 뿐이고 의료용 고무줄은 마약 투약을 위해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다.